



###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 극락도 지옥도 자신이 만든다

### 법신 ⑤

결정이 안 돼서 인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죠. 또 결정이 안 되는 원인은 이 색신을 내라 이렇게 생각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그리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고집쟁이라. 고집쟁이. 예 이것도 보니 자성이 없는 것이로구나 생각하면 말이죠. 가만히 보니 죽고 산다는 것이 물거품이로구나. 그래서 한 번 고집을 부려 봅시다. 우리는 고집쟁이가 한번 돼 봅시다.

일전에 말하기를 손가락 까딱까딱하는 거로써 예를 삼는 거 좋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도 한 번 여기서 직심로. 그러면 직심로의 노두는 어디인고? 애천이, 말해 보라. 노두. 직심로의 노두가 어디 있노?

니 마음에 있지 않나? 노두. 노두가 있고 길머리가 있고 길 끝이 있잖아요? 직심로로 달리는, 직심로의 길 노두, 길머리, 첫 출발하는 그 자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심로를 찾는 데는 돈이 한 푼도 안 들고 수고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노두를 찾으려면 내 마음에서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하니 노두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니 직심로를 찾으세요. 그래서 직심로에만 턱 올라서면 끝 가는 데가 그만 심성공항이라. 심성공항에 가면 파란 눈을 해가지고 석가모니불이 행들을 딱 잡고 있는데 비행기가 어디 하나 돌뿐인가요?

팔만사천대의 비행기가 기다려요.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턱 집어 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 예사로 듣지 마세요. 예사로 듣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은 원래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성이 없으면 이런 사람의 몸을 못 나눕니다. 그 불성이 사람의 몸을 나투었어.

그래서 색신에 휘둘리겠지만은 오늘이 자리에서부터 색신에 휘둘린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면 색신을 내가 잘 써, 잘 쓰긴 쓸지언정 여기에 휘둘리지 아니 하면은 바로 그 자리가 심성공항에 들어서는 겁니다. 직심로에 바로 올라서는 겁니다.

직심로일 따름이다. 자, 외도야 너도 오너라, 사도야 너도 오너라.

다 오너라. 외도 사도, 사람으로서인 외도요 사람로서인 사도이지 다른 거 어디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다 몰라서 그런 건데.

사랑과 분별은 금물이다. 앞생각을 끊고 뒷생각을 안 놓으면 그만이다.

앞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그저 다 싹답지 않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생각을 놓지 마라. 한 생각을 놓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무당야, 너도 오너라. 판수야, 너도 오

“

부처님이 여러분 속에 있다

여러분이 부처님 마음에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천하를 둘로 나뉘도

한 항아리 가운데이다.

이 소식처에서

삼악도가 뒤집히니

지옥이 부셔진다

극락세계는 자신이 만들어간다

”

나라. 평등성 중에 너와 내가 따로 없거늘 어찌 너로 하여금 차별을 할까 보나. 부처님 앞에는 오로지 생사고해를 떠도는 불자들이 있을 따름이니 한 번 땅을 굴러서 몸을 뉘쳐라. 시호시호가 부재래로다. 어허! 청산이 구름 속에 있느냐 구름이 청산 속에 있느냐!

여러분이 허공 속에 있는가요 허공이 여러분 속에 있는가요? 여러분이 부처님 속에 있는가요 부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가요? 이리 말하면 좀 어려워요. 여러분이 부처님 마음 속에 있는가요, 부처님이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가요? 어디에 있는가요? 가만히 생각을 해 보소. 청산이 구름 속에 있느냐 구름이 청산 속에 있느냐.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미타회상무인사(彌陀會上無人事)하니 양분천하일호중(兩分天下—壺中)이로다.

미타회상에는 한 도가니 속이다. 하나를 둘로 나뉘도 한 도가니 속이다. 니다 내다 해도 한 도가니 속이다. 밍다 끊다 해도 한 사람의 놀음놀이다.

번역하여 미타회상에 인사가 없으니 천하를 둘로 나뉘도 한 항아리 가운데이다. 이 소식처에서 삼악도가 뒤집히니 지옥이 와지곤 부셔지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듣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죽어서 극락세계 가야겠다. 극락세계 지 극락세계인가?

지 극락세계 지가 만들어서 가는데. 그러니까 벌써 이 소식을 알아.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앉는 것도 아니고 누는 것도 아니라는 이 소식, 이 소식을 알면 그래서 직심로를 향해서 심성공항에 가서 제트기를 올라 타 버려. 타면은 이 소식에 지옥이 와지곤 무너져. 지옥이 왜 그러냐. 과학적으로 그렇거든. 불을레야 불을 자리가 없어. 지옥이니 천당이니 하는 것은 모습에 들어볼지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 들어볼느냐 그 말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과학적 아니예요? 이렇게 이론적 아니예요?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 남의 마음을 맞추어 나가는 '수순'

### ⑨항순중생(恒順衆生)

南無至心歸命禮西方阿彌陀佛(一拜)  
我常隨順諸衆生 盡於未來一切劫  
恒修普賢廣大行 圓滿無上大菩提  
願我臨欲命終時 盡除一切諸障  
面見彼佛阿彌陀 得往生安樂刹  
願共諸衆生往生安樂國

참으로 이런 때문에 이르러서는 감격의 눈물이 안 난 달수가 없다.

여기서 수순(隨順)이라는 말이 있다. 수순이란 남의 마음을 맞추어 나간다. 그의 마음을 맞추어 주고 그로 하여금 흠족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해 나간다는 뜻이다. 마음을 맞추어 그가 흠족하도록 만들어 섬긴다는 것이지만 이에의 대별(大別)하여 두 가지의 큰 뜻이 들어 있다. 첫째 명법비무(明法非無)다. 이는 율효대사의 말씀이다. 진리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는 뜻이다. 진리가 어디 있느냐? 아무데도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항용 이런 의문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진리란 대의(大義)다. 의리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처럼 왜곡한 다든지 또는 소홀히 해서 안 된다.

대의고 뵈이고 그런 것이 어디 있나, 윤리고 뵈이고 다 부질없다 하는 이를 떼면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는 허무의식을 불교서는 악취공(惡取空), 또는 악취공견(惡取空見)이라고 한다. 왜곡하여 그릇되게 못쓰게, 없다는 견해를 취하여 망녕되이 데카당스해져 버려 해괴한 일들만 한다. 예컨대 돈밖에 믿을 것이 없다는 우리네의 요즘 세태는 이런 데서 비롯된 것이다.

악취공을 여의고 대의가 있다는 것을 뚜렷이 인식해야 한다.

그 다음 둘째는 현법비유(顯法非有)다. 진리는 결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다.

딱딱하고 응색하고 그저 무작정 고지식하게만 구는 것이 진리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잘 알도록 드러내 보인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 내가 이것을 한다. 나 아니면 아무도 이를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벌써 한다는 거서기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것은 공(空)이다. 자기가 한다는 것을 코에다 걸고 자기만 할 수 있는 것이며 남은 못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허한 일이다. '나' 라고 하는 집착에 빠져 있다. 아상(我相)을 내

세우는 것은 유(有)다. 공과 유의 양 극단은 여의어야 한다. 나는 대의를 지켰다고 대의를 내세우는 것은 벌써 이를 그르치는 것이 된다. 충무공(忠武公)이 어디 나는 종신 노릇 했으니까, 나는 이렇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을 리 없다. 나는 나의 할 노릇을 하였다. 나라는 위해 이렇게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이 일을 하여 왔다. '그저 그런 것이다' 라고 알았을 것이다. 내가 옳은 일을 해다스니, 나는 결코 그릇된 일을 안 해야 되겠다스니, 그런 때 끼인 생각은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수순(隨順)인데, 중도(中道)에 가장 맞는 순합(順合)한 것이라 하여 순중도리(順中道理)라는 것이다. 중도에 맞는 견해와 그러한 지경, 그러한 행동을 수순이라고 한다. 남의 마음을 맞

“

내 옳다 주장하면

허하고 '쑈' 하다

아상 내세우면 '有'

공과 유의 양 극단을

버려야 한다.

중도에 맞는 견해와 행동

즉 '수순'이 필요하다.

”

춘다는 이 수순이 얼른 생각엔 쉬운 것 같지만 실상은 이렇듯 어려운 것이다.

'나는 일체의 겁이 다하도록, 앞으로 늘 중생을 수순하련다.'

그런데 우리는 번번히 중생이란 말을 써 왔지만 여기서 한번 이 중생을 놓고 생각해 보기로 한다. 흔히들 모든 사람들 할 때 중생이라고 쓰는 것이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무릇 생명 있는 것들이라는 본래의 뜻대로 중생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종류를 따라 구별해 본다면 그것조차도 역시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많은 것이다.

사람의 이름도 술한 것이지만 벌레의 이름도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많은데 모기, 잡자리, 누에, 때까치, 하늘소, 달팽이 하는 따위가 있는가 하면, 한 가지 파충류에 중에도 뱀 족속 안에 독사, 너울뱀, 코뿔라, 비단구렁이, 까치뚝새 하는 투로 또

다르다. 네 발 짐승이라도 뱀, 토끼, 고라니, 사슴, 승냥이 등으로 명호가 모두 다르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중생이 가지고 있는 심성(心性), 심리 상태가 유별하게 제각각이다. 그들의 지식, 알음알이가 또한 다르다. 참으로 각각양색이러지만 여러 가지로 무한량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이러한 중생들의 하고자 하는 것, 또는 즐거워하는 바의 욕망이라는 것도 갖가지 종류가 있다. 마음씨도 독한 마음을 가진 사람, 어질고 착한 사람, 골똥한 사람, 산만하고 허명무실한 사람, 활달한 사람 등 그들의 의식 작용과 행동도 역만 가지다. 위외도 천태만상이다. 옷 입는 것만 하더라도 영국 사람,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스페인 사람이 다들 특색이 있고, 우리 동양에 있어서도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모두 다르다. 같은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자 옷 여자 옷이 다른 것이며, 남자라도 노장층의 옷과 청년층, 소년층, 유아들의 옷이 또한 같을 수 없다. 학생복이라도 국민학생, 중학생, 대학생, 여학생 복이 다른데다가 그것이 학교에 따라서 또 디자인을 달리하였다. 음식도 제 각각이다. 서양 사람들은 육식을 주로 삼고 빵 같은 식물성 음식은 그들의 부식인데 우리 동양에서는 식물성인 전분질이 주식이고 고기 같은 것이 오히려 부식이다. 중생의 먹이도 제가끔 분능적으로 먹는 것인데도 소 같은 것은 풀을 뜯어 먹거나, 여물죽을 먹거나, 하는 투로 많은 종류로 나뉜다. 중생들이 사는 곳이 또한 갖가지다. 땅 것들은 차치하고 사람만 치더라도 마을이며 몇 집 안 되는 부락, 성읍,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면(面)이라, 동(洞)이라 이(理)와 무순 부락 또, 시·읍(市邑), 직할시, 특별시, 구도(各道), 군(郡)하는 집두의 행정 구역이 있다. 살고 있는 집도 대궐 같은 집, 저택, 문화주택, 한옥, 오두막, 별장, 판자집, 빌딩, 아파트 하는 따위 중생이 사는 생활양식을 하나 하나 들먹인다면 한정이 없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최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용종

### 종정 일공



언론불사의 그 막중한 사명을 다하며.. 지령 1000호 발행의 큰 성과를 이루신 현대불교신문에 찬탄의 박수를 보냅니다. 부처님 해명을 바르게 퍼는 불교언론의 역할은 한국불교가 바르게 정진하는 크나큰 힘입니다. 구석구석 두루 살피고,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 불국정토가 구현되도록 노력해 온 20년의 성과는, 현대불교신문만의 성과가 아닌 한국불교 전체의 큰 성취입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현대불교신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사)세계불교 법왕청

### 대승정 목탁



오늘은 더없이 기쁘고 감격스런 날입니다. 창간된지 어언 지령 1000호 불교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고 새 역사의 햇볕 역할을 해온 정론지로써 살아있는 산 증인이요 역사였고 불교인들의 지팡이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한국 불교계 최고의 언론지로 우뚝 서 오늘에 이른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사랑과 자애로운 미소를 듬뿍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에 만족하지 마시고 혼탁한 사바세계에 탁마의 빛이 되고 중생들의 고통을 나누는 불교정화, 정신개혁의 주역이 되길 기원하며 찬탄의 박수를 보냅니다.